“가장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 ‘불국토’ 꿈꿔”



5년 만에 만난 한상균 前 위원장은 “ ‘조계사 은신 25일’ 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몸 의탁했던 25일
5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
경찰 막기 위한 인간띠 감동
“2000만 노동자 품어 줬다”

‘권리찾기 유니온’ 대표로
노동운동 새 역사에 도전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연대단체 형성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5년 11월 16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곳곳에 배치된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5월 노동절 집회 이후 체포영장에 이어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라’ 는 외침은 폭력적 진압과 수배령으로 돌아와 그를 옭아매고 있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KT해고노동자였던 양 위원장은 한때 노동계를 이끌었던 오랜 ‘동지’ 이자 도반이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만납시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말도 없었다. 도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짧은 통화였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주변을 돌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인적이 뜸해지자, 조계사를 밝히던 조명도 하나둘 꺼지고 경내엔 적막이 깔렸다.

밤 9시경, 한 위원장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조계사 대웅전으로 뛰어 들어갔다. 곧바로 사복경찰 7~8명이 들이닥쳤다. 부처님전에 삼배할 겨를도 없었다.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이미 조계사에 진입한 상황에서 체포는 불가능했다. 곧이어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도착했고, 한상균 위원장은 그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조계사 측은 숙고 끝에 한상균 위원장을 관음전에 머물도록 했다.

그렇게 ‘조계사 은신 25일’ 의 첫날이 지났다. 조계사 주변에는 1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며 경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근 건물에서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이 포진한 덕에, 거처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세상은 난리가 났지만 정작 관음전은 고요했다. 기도를 하고 책을 읽었다. 머릿속이 혼란할 때는 절을 했다.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깊은 고민에도 좀처럼 답은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집요했다.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는 물론, 조계종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다. 전국구, 지위 고하를 막론한 조계종 스님들과 무수한 인연 고리를 따라 “한상균을 내보내라”는 정부의 입김이 닿았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부처님 품에 깃든 중생을 내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그를 보호 중인 불교계를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는 공식발언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고 불교계 일각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도 배려해 주신 스님들께 거친 언행도 했었죠. 저로 인한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이후에야 알았죠. 그래서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경찰들의 감시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민주노총 측 관계자 한명 외에는 관음전을 드나들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12월 9일 급기야 경찰병력이 조계사 경내로 진입했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12대 중대 1000여명의 경찰병력이 집결해 조계사를 에워쌌고, 이를 막기 위해 조계종 종무원들은 관음전을 중심으로 인간 바리케이트를 쳤다. 밀려들어오는 경찰병력에 일부 종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양한웅 위원장을 매개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과 비밀리에 수 번의 소통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를 염두에 둔 입장을 밝혔고 자승 스님은 “끝까지 종단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자승 스님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며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유예했고, 한 위원장은 결연한 의지로 자진출두를 준비했다.

“당시 언론은 ‘폭력시위’ 만 보도하며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왜 2000만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대중과 만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였습니다. 2000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조금이나마 가 닿길 바랐지요. 한자 한자 새기듯 입장문을 쓰느라 거의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약속됐던 12월 10일, 한상균 위원장은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조계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 품을 허락해 준 불교계에 대한 감사였다.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투쟁’ 이 새겨진 머리띠를 매고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한사람의 해고노동자로서 살아온 삶과 98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 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악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폭력적 진압에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선생의 이야기까지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당시 현장을 생중계 한 방송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자진출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날의 결단이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가 됐지요. 저는 그대로 체포됐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을 덜고 사회에 던진 울림은 결코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위원장은 “그날 관음전에서 나와 대웅전, 생명평화법당, 그리고 일주문까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만들어 저를 보호해 주셨던 조계종 관계자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조계사 은신 25일을 끝으로, 2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이 시작됐다. 한평 남짓 독방은 그에게 최고의 도량이었다. 종일 마주하는 하얀 벽은 끝없는 화두를 던졌다. 어느 날엔 세계 인권운동의 역사를 쓴 철학자들이, 어느 날엔 부처님이 새겨졌다. 사회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감옥 안에서 소식을 접한 그는 “경이로웠다”고 회상했다. 국민 개개인의 힘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봤다. 조합을 넘어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사자들이야 말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확신이었다.

2018년 가석방 출소한 그는 최고의 도량에서 그려온 그림을 현실화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 결실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조직 ‘권리찾기 유니온’ 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마찬가지. 4대 보험 가입조차 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는 꿈도 꿀 수 없는 노동자들, 계약의 형식과 규모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아 온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가파른 생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었다. 반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그가 ‘권리찾기 유니온’ 을 일컬어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가입을 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방증해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점입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개개인의 가입을 통한 펼쳐내는 자유로운 연대의 장이다. 사업주를 향한 투쟁이 아니다. 당사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모아내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는 메시지로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이다.

사실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중생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일궈내는 과정이 그와 같다. 어찌보면 5년 뒤 다시 만난 그는 불교계를 향해 이 시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진 셈이다.

“2000만 노동자는 중생의 삶을 대변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우리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죠.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계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2000만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가 불국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5년 전 벼랑 끝에 몰린 채 부처님 품에 깃들었던 그가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생존의 경계에 선 노동자들과 손을 잡았다.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모두가 행복한 세상, 즉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여정일 지도 모를 일이다.



조계종 종무원 등 불자들은 한상균 前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2015년 12월 10일 조계사를 나와 자진출두하던 당시의 모습.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

21세기 문화융성시대와 불교의 역할

2020. 12. 24 목 – 25 금

삼광사 지관전

대한불교 천태종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공동으로 12월 24~25일 양일간 부산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삼광사와 부산불교 중흥–삼대지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삼광사의 미래 역할과 포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24일(목)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사회
09: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0:00	개회식		이필원 (동국대)
10:30	기조발표	**주제**: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삼대지표운동 김세운(삼광사주지)	
11:00	제1발표	**주 제**: 부산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 **발표자**: 권기현(위덕대) **논평자**: 김명우(동아대)	
12:00	오 찬		
13:00	제2발표	**주 제**: 부산불교복지에서 삼광사의 역할과 전망 **발표자**: 도웅스님 **논평자**: 최연주(동의대)	우명주 (동국대)
13:50	제3발표	**주 제**: 천태종 종무행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발표자**: 월도스님 **논평자**: 오지연(동국대)	
14:40	제4발표	**주 제**: 코로나시대,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 부산불교의 현황을 기반으로– **발표자**: 조기룡(동국대) **논평자**: 김영미(동국대)	
15:30	Break Time		
16:00	제5발표	**주 제**: 관음염불의 실천행 고찰 –한국 천태종 삼대지표를 중심으로– **발표자**: 보덕스님(동국대) **논평자**: 이종수(순천대)	김희 (인제대)
16:50	제6발표	**주 제**: 삼대지표로 본 가람배치의 구조와 의미 –구인사와 삼광사를 중심으로 – **발표자**: 문무왕(동명대) **논평자**: 고영섭(동국대)	
17:40	총평		
18:10	기념촬영	참가자 전원	

12월 25일(금) 프로그램

12: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3:00	제7발표	**주 제**: 삼대지표와 한국 근대불교 개혁론 **발표자**: 이병욱(고려대) **논평자**: 강경구(동의대)	황상준 (동국대)
13:50	제8발표	**주 제**: 수행과 기도중심으로 부산불교를 이끌다 –재가불자 수행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철헌(동국대) **논평자**: 조명제(신라대)	
14:40	제9발표	**주 제**: 대조사 법어에 나타난 천태사상의 새로운 해석 **발표자**: 광도스님(금강대) **논평자**: 임상목(북경대)	
15:30	Break Time		
16:00	제10발표	**주 제**: 삼대지표와 천태법화사상 **발표자**: 이기운(동국대) **논평자**: 차차석(동방대학원대)	강대현 (위덕대)
16:50	제11발표	**주 제**: 대조사의 한국불교 개혁론 **발표자**: 김경집(동국대) **논평자**: 제점숙(동서대)	
17:40	총평	**총 평**: 권기종(동국대 명예교수)	
18:10	폐회식	**폐회사**: 김세운(삼광사 주지) 사홍서원	

주최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주관 대한불교 천태종 신도회

후원 대한불교 천태종 | 금강신문 | BBS불교방송 | BTN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문의 051)808-7111~5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